

무더위 날리는 ‘쿨’한 여행지 3선

얼음굴·수락폭포·광명동굴

더울 때는 역시 시원한 곳이 최고다.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바다와 산과 계곡을 찾아 떠난다. 소름 돋게 서늘한 동굴, 얼얼한 물맛이 폭포, 한여름에 더 시원한 골짜기 등 국내 대표적인 ‘쿨’(cool)한 여행지를 찾아 나섰다. 인근에 가볼 만한 곳도 함께 돌아봤다.

글 임동근 · 사진 조보희 기자

밀양 얼음골

한여름에 냉기 가득한 계곡



1 밀양 얼음골의 결빙지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천황사 2 물이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얼음골 계곡 3 결빙지 바위틈에 놓인 온도계가 0도를 가리키고 있다. 4, 5 결빙지와 돌무더기 사이 공간 안쪽에 조그맣게 맺힌 얼음

경남 밀양 얼음골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기(寒氣)가 엄습했다. 겉보기에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 계곡 입구에서 에어컨이라도 틀어놓은 듯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바람막이를 챙겨야 했다.

발 디딜 때마다 가까워지는 겨울왕국

매표소를 지나자 계곡 왼편으로 오르막이 이어진다. 여름에 고드름을 볼 수 있다는 결빙지까지는 450m. 계곡 길을 따라 10여분을 오르자 조그만 산사인 천황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석불좌상을 사자 11마리가 떠받친 통일신라 시대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213호)이 있다고 하는데, 볼 수 없었다. 탐방로는 계곡을 가로지른 다리 건너로 이어진다. 다리를 건너자 또 다른 한기가 느껴진다.

“천황사 앞과 다리를 건넌 후, 그리고 오르막을 살짝 오른 뒤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계곡을 따라 오를 때면 몸의 좌우 느낌도 다르죠.”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처럼 장소를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움이 달라졌다. 계곡 위쪽은 희뿌연 안개가 끼어 신비한 느낌을

준다. 결빙지가 가까워지면서 한기는 한층 더해만 간다. 마침내 도착한 결빙지에는 사방으로 차가운 바람이 휘돌고 있었다.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린 너덜정 지형인 결빙지는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차가운 기운은 펜스에서 가장 가까운 돌무더기 사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계곡 아래쪽이 에어컨이었다면 여기는 냉동고쯤 될 것 같다.

얼음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돌무더기 사이의 어두운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고드름은 없었다. 바위 표면에 물방울이 얼어붙은 모습이 관찰될 뿐이었다. 고드름은 3~6월에만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쪽 바위틈에 놓인 온도계는 0도를 가리키고 있다. 30도를 넘나드는 여름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한겨울에도 이곳은 이 온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한겨울에는 조금

따스하게 느껴지는 곳인 셈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얼음골 인근 백운산 자락 계곡에는 한여름 더위를 씻기 좋은 시레호박소와 오천평반석이 있다. 얼음골처럼 한기가 서린 곳이 아니라 풍광이 시원스러운 곳이다. 호박소는 계곡의 물줄기가 바위에 떨어져 커다란 못을 만든 지형으로 그 모습이 절구의 일종인 호박을 닮았다 하여 호박소라 불린다. 폭포수가 소를 향해 떨어지는 광경이 무척 아름답다. 계곡을 1km 정도 걸어 올라야 나오는 오천평반석은 이름처럼 드넓은 화강암 반 사이로 물줄이 지나는 지형이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거나 넓은 반석에 누워 휴식하기 좋다.





환상적인 트윈터널과 안개비 내리는 꽃새미마을

밀양은 ‘여름 도시’라 불려도 좋을 정도로 시원한 곳이 여럿 있다. 삼랑진에 있는 트윈터널은 여름 휴가지로 제격이다. 1902년 경부선 철길에 있던 무월산 터널을 관광 명소로 변신시킨 곳으로, 연중 15도 정도를 유지한다.

총 1km의 터널 내부는 색색의 LED로 화려하게 치장돼 있다. 빛의 터널과 가재, 컬러 테트라, 에인젤피시 등이 있는 수족관, 각종 동화 속 캐릭터가 있는 공간, 으스스한 공포의 구간, 소망을 적어 걸 수 있는 하트 구간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져 있다. 산타 마을이 있는 핀란드로 바니에미, ‘유럽의 지붕’으로 불리는 스위스 융프라우요흐와 전통마을인 뮌헨 등 겨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으로 꾸며진 공간도 있다.

올여름에는 농촌체험마을인 꽃새미마을도 빼놓을 수 없겠다. 꽃새미마을은 이른 봄 복수초가 피어 늦가을 강국이 질 때까지 연중 꽃이 핀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곳에선 봄에는 야생화 축제, 가을에는 허브 축제가 열린다.

손정태 꽃새미마을 위원장은 “소원을 들어드립니다”가 이 마을의 주요 테마인데 돌탑이 365개 있는 우리 마을을 방문하고 나면 1년 내내 건강과 행운이 깃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의 중심에는 ‘참샘허브나라’가 있다. 이곳에서는 로즈메리, 캐모마일, 세이지, 레몬 밤, 페퍼민트 등 온갖 허브가 자라고 있다. 허브가든을 한 바퀴 돌면서 각종 허브 식물을 만지면 향긋한 허브향에 기분이 좋아진다. 각종 야생화와 아름다운 분재, 기와를 엮은 낮은 돌담도 볼 수 있다. 꽃새미마을의 올여름 테마는 ‘비 내리는 꽃새미마을’. 분무 장치가 달린 호스를 설치해 곳곳에서 안개비가 내리게 했다. 방문객은 입구에서 나눠준 우산을 펼쳐 들거나 안개비를 맞으며 여름 한나절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1 각종 만화 캐릭터로 장식된 트윈터널 내부 2 하트와 튜립으로 장식돼 있다. 3 환상적인 빛의 터널 4 동화 속 풍경을 연출하는 공간 5 황금빛 보리와 단풍으로 치장돼 있다. 6 꽃새미마을에 세워진 조형물 7 철도 탐방로 8 각종 허브식물과 야생화가 가득한 참샘허브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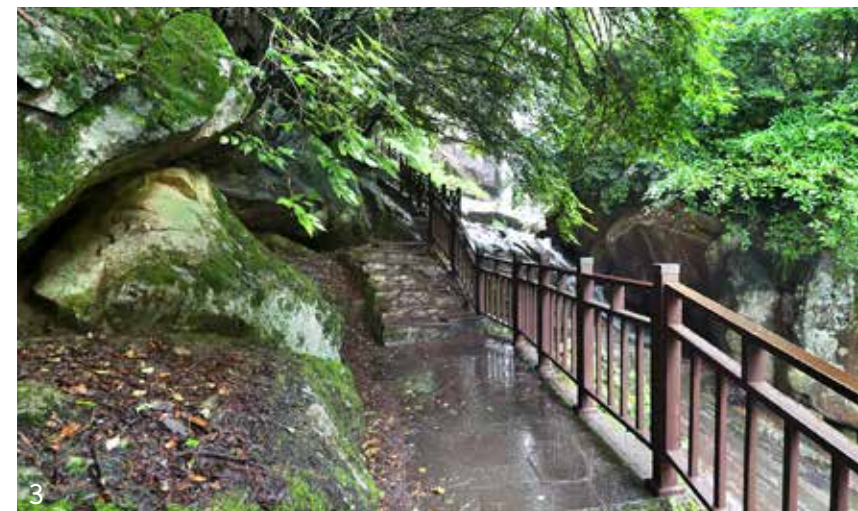


구례 수락폭포

온몸을 강타하는
짜릿한 물줄기

전남 구례로 향하던 날, 하필 장마전선이 북상해 전국 곳곳에 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더위를 날려줄 피서지를 찾아 나선 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축축하고 스산한 날씨였다. 수락폭포에 가까워지자 빗방울은 더 굵어졌다. 예상대로 수락폭포 입구는 적막할 정도로 한산했다. 자동차 몇 대가 주차돼 있었지만 사람을 볼 수는 없었다. 조그만 카페 안에서 겨우 3명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수락폭포를 오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우산을 펼쳐 들고 수락폭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여름이면 아이들로 북적였을 계곡 물놀이장도, 계곡 너머 평상에도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여름철 최고의 국내 피서지도 장마의 힘은 거스를 수 없었다.

15m 높이에서 쏟아져 내리는
구례 수락폭포 2 수락폭포
가는 길의 수로 3 수락폭포로
이어지는 탐방로



비 오는 날의 상쾌한 물맞이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다. 입구 쪽에 설치된 조그만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추적추적 비를 맞으며 계곡을 따라 푸른 녹음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계곡 왼쪽 탐방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소리는 한층 커졌다.

수락폭포는 커다란 바위 사이로 굉음을 내며 하얀 물줄기를 시원스럽게 쏟아내고 있었다. 동편제 판소리의 대가인 송만갑(1865~1939)이 득음을 위해 수련했다는 곳이다. 조심조심 바위를 딛고 폭포로 접근했다. 가까이서 보니 물줄기가 꽤 굵어 보인다. 재빨리 물줄기 아래로 머리를 집어넣고 섰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이 기우뚱거리더니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폭포의 힘을 간파한 탓이었다. 아찔했다.

다시 몸을 일으켜 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폭포수 아래 섰다. 15m 높이에서 떨어진 물줄기가 머리와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삼십까지 세기가 힘들 정도로 수압은 강력했다. 그렇게 다섯 차례 물을 맞았다.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폭포는 독차지였지만 물맞이를 더는 할 수 없었다. 물줄기와의 싸움에 지친 탓이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해지고 뭉쳤던 어깨는 부드러워졌다.

수락폭포는 '물맞이 폭포', '천연 워터 테라피'로 알려져 있다. 물맞이가 신경통, 근육통 등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이 계곡에선 면역력을 증진하는 산소 음이온도 많이 나온다고 한다.



1 노란색 각시원추리가
뒤덮은 지리산정원
야생화생태공원
2 야생화테마랜드
소나무숲길
3 야생화테마랜드에
피어난 습지 식물

100여 종이 계절마다 꽃을 화려하게 피운다.
지난 7월 중순 방문했을 때 야생화생태공원 내 야생화테마랜드에는 노란색 각시원추리, 홍자색 부처꽃, 연자주색 별개미취 등이 여기저기 군락을 이루며 공원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다.
야생화테마랜드 방문자센터에 있는 유리온실에서도 송엽국, 호주매화, 덩이괭이밥 등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음악분수, 소나무숲길, 잔디광장도 있다. 토끼여리 곤충 조

폭포 주변 언덕 숲속엔 나무 데크로 만든 짧은 산책로가 설치돼 있다. 가볍게 걸으며 폭포와 주변 풍광을 감상하기 좋다.

야생화 천국에서의 여유로운 산책
구례는 야생화 천국이다. 국내 야생화 종의 30% 정도인 1천500여 종이 구례를 포함한 지리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다. 구례를 방문했다면 아름다운 야생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야생화는 산림복합휴양 공간인 지리산정원에서 만날 수 있다. 지리산 자락 지초봉을 중심으로 남서쪽에는 야생화생태공원, 북동쪽에는 산림휴양타운이 자리해 있다. 24만㎡의 야생화생태공원에서는 야생화

형물과 수생식물을 만날 수 있는 자생식물원, 산수유와 구상나무 등이 식재된 구례생태숲도 천천히 걸으며 산책하기 좋다.
야생화를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곳도 있다. 바로 한국압화박물관. 압화는 우리말로 '꽃누르미' 또는 '누름꽃'이라고 하는데, 눌러 건조한 꽃을 이용해 작품을 만든 것을 말한다. 박물관에는 대한민국 압화대전 역대 수상작과 우리나라, 대만, 일본, 중국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압화를 이용한 회화, 장신구, 공예품 등 화려한 누름꽃의 세계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자녀와 함께라면 섬진강 어류생태관도 좋다. 제1전시장은 섬진강의 발원지인 데미샘과 이름의 유래, 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제2전시장은 버들치와 쉬리, 참갈겨니, 모래무지, 피라미, 누치 등 섬진강에 실제 서식하는 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 육식성 어류인 쏘가리와 꺾지, 가물치도 볼 수 있다. 야외 수달공원에서는 먹이를 찾아오는 귀여운 수달도 만날 수 있다.
섬진강 어류생태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는 1776년 건립된 조선 시대 양반 가옥인 운조루가 있다. 고풍스러운 운조루의 사랑채 부엌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 '누구나 능히 열 수 있다'는 뜻)라 적힌 뒤주가 있다. 운조루 창건주인 류이주가 배고픈 사람들이 언제든지 쌀을 가져갈 수 있게 놓은 것이라고 한다. 인근에는 운조루의 역사와 그곳을 거쳐 간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물전시관이 있다.



4 화려한 누름꽃 작품이 전시된 한국압화박물관 5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섬진강 어류생태관 6 고풍스러운 조선 시대 양반 가옥인 운조루





을 스크린으로 활용한 쇼는 탄성이 터질 정도로 환상적이다. 동굴 암반수를 이용한 아쿠아월드도 있다. 수족관에서는 쉬리와 버들치를 비롯해 몸통 내부가 보일 정도로 투명한 글라스 캣피시, 인디언 나이프시피, 유령 같은 블랙 고스트, 피라냐, 공룡시대 물고기인 폴립 테루스 세네갈스와 스포티드 가야 등 특이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소망을 적은 황금패를 걸어두는 소망의 벽과 9m 높이에서 물이 쏟아지는 황금폭포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 황금궁전과 황금의 방이 나타난다. 이곳에선 행운을 들어준다는 광명동굴의 캐릭터인 아이샤와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좀비캐슬'이란 이름의 공포체험관도 있다. 무시무시한 좀비 모형과 장식이 무더위를 싹 날려버린다. 발걸음을 옮겨 넓은 공간에 도착하면 거대한 용이 눈을 번쩍이며 동굴 천장을 기고 있다. 용 아래에는 영화 '반지의 제왕' 속 골룸이 자리한다. 이 조형물은 '반지의 제왕'의 특수효과를 담당한 회사인 뉴질랜드의 웨타위크숍이 제작한 것이다. 간달프의 지팡이도 한쪽에 전시돼 있다. 동굴 암반수를 맞볼 수도 있다. 예전 광부들이 채광할 때 먹던 생명

1 광명동굴 내 소망의 황금나무 2 장미꽃 모양 조명으로 치장된 원홀광장 3 화려하게 장식된 '빛의 공간'



쓸모를 다한 광산들이 박물관, 와인 바, 레스토랑과 카페, 냉풍욕장 등 관광명소로 변신하고 있다. 그중 최고봉은 '폐광의 기적'이라 불리는 광명동굴. 일제강점기인 1912년 개발돼 금·은·동·아연을 채굴하다 1972년 폐광된 이후 새우젓 저장고로 활용됐고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2015년 유료화 이후 4년 만인 지난 5월까지 무려 500만 명이 다녀갔다.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은 지난 7월 초순 광명동굴은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동굴 입구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때린다. 따가운 햇볕과 차가운 바람의 부조화. 연중 12도로 유지되는 동굴은 그야말로 천연 에어컨이었다. 패딩이나 점퍼 차림의 사람들을 보니 아차 싶었다. 입구에서부터 팔에는 소름이 돋고 있었

다. 은은한 조명이 벽면을 장식한 입구 구간은 '바람길'.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 것 같다.

환상적인 동굴 탐험

동굴 여행의 첫 공간은 '원홀광장'. 동굴 내 4개의 길이 만나는 곳으로 화려한 장미꽃 모양 조명으로 치장돼 있다. 이곳은 계절에 맞는 분위기로 1년에 4회 변신한다. 은하수처럼 화려한 빛으로 장식된 터널인 '빛의 공간'을 지나면 미디어파사드쇼가 펼쳐지는 '동굴 예술의전당'. 인간에 의해 파괴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지구 중심부로 여행을 떠나는 스토리를 프로젝션 매핑과 레이저 쇼로 화려하게 구현했다. 동굴 암벽





1



3



4



5

4, 5 색을 주제로 흥미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레인보우 팩토리 6 VR 체험관 7, 8 업사이클아트센터에 전시된 작품들

수로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물맛은 달콤하고 시원하다. 바위를 뚫어 만든 '불로문'을 지나면 근대 역사관이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역사를 그래픽, 영상으로 보여준다. LED를 이용해 각종 식물을 키우는 식물원을 지나면 와인동굴이 나타난다. 이곳에선 국내 와인너리에서 생산된 와인 200여종을 판매하고 있다. 매일 와인을 바꿔가며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VR체험관과 업사이클아트센터

동굴 입구 왼쪽에는 VR체험관이 있다. VR 헤드셋을 쓰고 각종 기구에 오르면 동굴과 관련한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다. 우선 12인승 광차 롤러코스터에 오르면 환상적인 경도가 눈 앞에 펼쳐진다. 아이샤의 안내를 받아 황금방에 도착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갱도에서의 착암, 폭파, 채굴의 과정을 VR로 체험하고, 행글라이더로 광명동굴

의 전경과 광명시의 관광 코스를 감상하며, 광명동굴이 있는 노두바위에서 암벽등반도 경험할 수 있다. 동굴 오른쪽에는 색을 주제로 한 어린이 공간인 레인보우 팩토리가 자리한다. 색상실험실에선 색의 조각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그림자연연구소에선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을 튕기며 놀 수 있다. 또 오로라 발전소에선 빛의 터널을 거닐고 구름 위 미끄럼틀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다. 광명동굴 아래쪽에 있는 업사이클아트센터도 흥미롭다. 이곳은 버려지는 물건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새로운 작품이나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공간으로, 각종 업사이클 예

술품이 전시돼 있다. 환경파괴로 살 곳을 잃은 오랑우탄이 양은냄비와 철, 세라믹으로 제작돼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코끼리, 폐나무 조각으로 만든 호랑이와 악어, 페트병으로 만든 고래, 폐 주방기구로 만든 독수리 등이 전시돼 있다. 폐자재로 만든 옷과 인형, 가방, 램프, 촛대, 화분 등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선 미니 액자, 병 조명 등을 만드는 수업이 진행된다. ▼



8



2



6



7